

# 고시기획

www.gosiplan.com  
INews

2019 박문각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

합격목표 달성을 위한 시작!

5월 31일(금) 오후 2시 남부본원 301호

## 6월, 공무원 시험 '터닝포인트'

13일 국가직 9급 채용 종료 · 15일 9급 필기시험 동시 실시



▲ '마지막 관문' 2019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선발을 위한 면접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 고시기획  
(면접시험 기출문제 및 포토뉴스 2면에 이어집니다)

2019년의 중반부에 접어들며 공무원 시험 일정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6월에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와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 6월3일, 국회 8급 합격자 +기상청 면접 시작

우선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이 6월3일 공개된다. 국회사무처 8급은 지난 5월4일 필기시험을 치렀으며 총 26명을 선발 할 예정이다.

향후 채용 일정은 ▲면접시험 6월 10~13일 ▲최종 합격자 발표 6월14일이다.

기상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은 6월3일부터 5일까지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6월20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

참고로 기상청은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0명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 6월13일, 국가직 9급 최종 합격자 발표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6월13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총 4천987명으로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 될 예정이다.

수험 관계자는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명단이 지방직 9급 필기시험 전에 발표되는 만큼 응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6월15일, 지방직+서울시+교육청 필기 6월15일은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의 날이다.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 교육청 9급 필기시험이 동시에 치러진다.

올해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 채용은 전년 대비 선발인원 증가와 경쟁률 하락세가 뚜렷하다.

각 지역별 경쟁률은 ▲서울 24.1대 1 ▲경기 13.85대 1 ▲인천 14.1대 1 ▲대전

23.9대 1 ▲대구 22.69대 1 ▲광주 17.96대 1 ▲울산 40.84대 1 ▲부산 24.32대 1 ▲강원 13.72대 1 ▲충청남도 10.69대 1 ▲충청북도 11.6대 1 ▲전라남도 11.69대 1 ▲경상남도 10.2대 1 ▲경상북도 10.44대 1 ▲제주도 10.8대 1 ▲세종시 24.7대 1이다.

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 채용 또한 전년 대비 신규채용 증가, 평균 경쟁률 하락을 기록했다.

수험 관계자는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 9급 필기시험이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눈치싸움이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년 대비 경쟁률이 크게 감소한 서울시 시험의 응시율 증감 여부가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6월22일, 군무원 필기 실시

원서접수를 마무리한 군무원 필기시험이 6월22일에 치러진다.

각 군은 이번 채용을 통해 ▲국방부 401명 ▲육군 2천514명 ▲공군 557명 ▲해병대 121명 ▲해군 388명을 선발한다.

필기시험 장소 발표일은 ▲육군 5월31일 ▲공군 6월7일 ▲해군/해병대 6월7일 이므로 응시생들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소방직, 채용 중반부 넘어서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도 이어진다.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강원도, 전라북도, 세종시가 6월 중으로 소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 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은 각 지역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응시생들은 각 시험별 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2020년 합격할 공시생은  
**박문각 스파르타**

합격목표 달성을 위한 시작!

합격률 99.9%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합격률 99.9% 달성

2019년 SMART 합격공식  
**확인학습 Pen**

이 펜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합격기법공식

남보다 집중해서 오랜시간 공부하는 것

합격 = 집중 x 시간  
Pass Focus Time

다음호 고시기획 신문은 6월13일(목) 발행됩니다.

- 명칭 : (주)에듀스파박문각 고시기획신문사
- 등록연월일 : 2014년11월01일
- 제호 : 고시기획
- 간행 : 주간(매주 목요일)
- 인쇄인 : 정희택
- 발행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랑진로 171
- 대표번호 : 02-824-8385

BOOK info

2019 | 9급 공무원 시험대비  
**사회 확인학습노트/채움합격노트**

경제/사회/문화/법과 정치 등 모두 총 123개의 빈출 테마로 정리  
빈칸형 [확인학습노트]와 정답 제시형 [채움합격노트]로 세트 구성  
핵심 내용 요약한 [개념정리]와 기출 지문 정리한 [확인학습]으로 본문 구성  
확인학습편 전용 교재로 스캔하면 다양한 관련 학습 자료 제공

정장 편저 / 35,000원(2권 세트)

©M 박문각

## 국가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 “드디어 시작”

2019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이 지난 26일 막을 올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면접시험을 통해 9급 공무원 4천98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9일 현재까지 기출된 개별직문을 살펴보면 ▲직렬과 관련한 자신만의 강점 ▲의견을 제시해 상대방을 설득한 경험 ▲우정사업본부 회계 운영 방법에 대해 아

는지 ▲우체국 업무 3가지 중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우체국 택배장점 ▲우체국 서비스 중 개선해야 할 부분 등이었다.

5분 발표 주제는 ‘소방관의 기도’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공직가치 및 공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자의 자세 등이 출제됐다.

자기기술서 주제로는 ▲과제나 프로젝트를 본인이 처리하면서 기간의 정확성과 성과물의 완

성도가 총돌된 경험 ▲우체국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고객 전용 창구를 개설했는데 일반 고객의 대기 줄이 긴 경우 일반 고객도 우수 고객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할 경우 대처 방안 등이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는 6월1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된다.

### [국가직 9급 공무원 포토뉴스]

국가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이 5월26일 일산 KINTEX에서 시작됐다.

‘국가직 9급 공무원’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을 앞둔 응시생들의 순간을 『고시기획』이 함께했다.

\* 구름을 걷고 밝은 햇살을 향해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면접시험 응시장으로 향하는 수험생의 모습.

\* 치열한 열기



국가직 9급 공무원 오후 면접을 앞두고 응시자와 보호자들이 모여 있는 대기장의 모습.

\* 힘찬 발걸음



면접시험 응시를 위해 수험생들이 열을 맞춰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 ‘6월15일’ 지방직 9급 시험장 속속 발표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을 앞두고 지역별 시험장소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응시 직렬 및 번호에 따라 시험장이 다르므로 수험생들은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필기시험을 청운증을 포함 총 138곳에서 치른다고 밝혔다. 가산점 등록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센터

넷원서점수센터에서 등록 가능하다.

향후 일정은 ▲성적 사전공개 7월15~16일 ▲이의제기 기간 7월16일 ▲재검증 결과 공지 7월18일 ▲합격자 발표일 7월26일 이다.

경상남도 제2회 지방공무원 시험장소는 ▲창원지역 28곳 ▲진주시 11곳으로 확정됐다.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25일이다.

대구시 필기시험장은 대구공고를 포함 총 22곳이다. 향후 채용 일정은 ▲성적 사전공개 7월8~9일 ▲이의제기 기간 7월10일 ▲재검증 결과 공지 7월12일 ▲합격자 발표 7월19일이다.

부산시도 9급 공무원 필기시험장소를 최종 확정했다. 시험장은 금정증을 포함 총 31곳이다.

## 교육청 9급 필기시험 장소 발표 이어진다

충북·충남·대전·대구 장소 확정 ... 공고문 확인해야

【2019년 교육청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장소】			
지역	장소	지역	장소
충청북도	▲충북공고 ▲서경중 ▲서현중	대전시	▲대전삼천중
충청남도	▲아산중 ▲아산고 ▲온양중	대구시	▲시지중 ▲노변중 ▲안심중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매호중

6월15일 필기시험을 앞둔 각 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장소를 발표하고 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북공고 ▲서경중 ▲서현중에서 시험

을 실시한다.

충청남도 교육청 필기시험은 ▲아산중 ▲아산고 ▲온양중에서 치러진다. 한편 충청남도 교육청은 장소 공고와 함께 시험 일정

변경도 공지했다. 변경된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7월2일 ▲면접시험 7월18일 ▲최종 합격자 발표 7월26일이다.

대구시 교육청 필기시험 장소도 발표했다. 시험장소는 시지중 등 총 5곳이다.

대전시 교육청 필기시험은 삼천중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7월12일에 발표된다.

2019 / 7.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선우한국사

봉투모의고사

시문 10문 / 11,000원

2019 / 7.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정채영국어

봉투모의고사

시문 10문 / 10,000원

2019 / 7.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이경행정학

봉투모의고사

시문 10문 / 10,000원

## 2019 7·9급 공무원 시험대비 시험 직전 최종점검! 박문각 봉투모의고사

- ☑ 최신 기출유형 완벽 반영한 동형 문제 정선
- ☑ 이론의 빈틈을 없애는 약점 정복 해설집
- ☑ 실전 감각 기르는 OMR 답안지 첨부



합격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

박문각 AI 확인학습

# 정채영 국어 기출문제 특강

4년간 공무원  
실제경 국어

기출문제 특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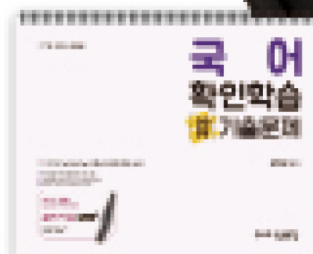
국어완전 정복 + 실전 완벽 마무리!

단 2회 특강으로  
고득점 완성!

6/1(토), 오후 2시

6/8(토), 오후 2시

▶▶▶ (14:00~18:00 / 총 2회 수업)



장소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

교재 박문각 국어 확인학습 2019기출문제(무료 증정)

**특강 수강료 무료**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http://www.pmg.co.kr)

노량진남부2세학원 02815-7819, 3386-9990 온라인 023468-9500





박 문 각 공 무 원

# 합격을 부르는 박문각 AI 확인학습



인공지능이 반영된 박문각 확인학습 시스템으로

## ≡ 빠르게 합격 하세요! ≡

확인학습 펜



+

확인학습 교재



모르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완하세요!

## 「2019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지방세 경쟁률 정리」 ⑤ 충청남도

## 선발인원 26명→45명으로 늘어...평균 경쟁률 '하락'

[편집자주] 2019년 지방직 9급 공무원 경쟁률 현황이 모두 발표됐다. 6월15일 필기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시험 직전까지 응시지역 선택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7개 지방직 9급 지방세 채용인원 및 경쟁률 현황 등을 총 정리해본다.

## ■ 선발인원 26명→45명

2018년 충청남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선발인원은 총 26명이다.

지역	2018년	2019년	지역	2018년	2019년
충청남도	1명	-	당진시	2명	3명
천안시	4명	10명	부여군	1명	1명
보령시	2명	3명	서천군	3명	1명
아산시	2명	2명	청양군	2명	3명
서산시	2명	3명	홍성군	1명	1명
논산시	3명	2명	예산군	3명	3명
공주시	-	2명	계룡시	-	2명
금산군	-	4명	태안군	-	5명

지역별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4명 선발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 1명 ▲보령시 2명 ▲아산시 2명 ▲서산시 2명 ▲논산시 3명 ▲당진시 2명 ▲부여군 1명 ▲서천군 3명 ▲청양군 2명 ▲홍성군 1명 ▲예산군 3명이다.

충청남도는 올해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45명을 선발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선발인원 26명과 비교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던 공주시, 금산군, 계룡시, 태안군이 올해 선발인원을 공고했으며 천안시도 지난해 4명 선발에서 올해 10명으로 채용을 늘렸다.

지역별 채용인원은 ▲천안시 10명 ▲보령시 3명 ▲아산시 2명 ▲서산시 3명 ▲논산시 2명 ▲공주시 2명 ▲금산군 4명 ▲당진시 3명 ▲부여군 1명 ▲서천군 1명 ▲청양군 3명 ▲홍성군 1명 ▲예산군 3명 ▲계룡시 2명 ▲태안군 5명이다.

## ■ 출원인원 364명→375명

지난해 충청남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원서접수 결과 출원인원은 총 364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천안시에 113명이 몰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1명을 선발하는 홍성군에는 단 3명만이 접수 를 마쳤다.

지역별 출원인원은 ▲충청남도 20명 ▲보령시 14명 ▲아산시 29명 ▲서산시 39명 ▲논산시 36명 ▲당진시 22명 ▲부

여군 8명 ▲서천군 21명 ▲청양군 30명 ▲예산군 29명이었 다.

2019년 원서접수 결과 출원인원은 375명이었다.

지역	2018년	2019년	지역	2018년	2019년
충청남도	20명	-	당진시	22명	18명
천안시	113명	124명	부여군	8명	12명
보령시	14명	14명	서천군	21명	6명
아산시	29명	38명	청양군	30명	12명
서산시	39명	18명	홍성군	3명	18명
논산시	36명	20명	예산군	29명	20명
공주시	-	27명	계룡시	-	15명
금산군	-	23명	태안군	-	10명

천안시에 124명이 몰렸으며 서천군에는 단 6명만이 접수 를 마쳤다. 지역별 접수인원은 ▲공주시 27명 ▲보령시 14명 ▲아산시 38명 ▲서산시 18명 ▲논산시 20명 ▲계룡시 15명 ▲당진시 18명 ▲금산군 23명 ▲부여군 12명 ▲청양군 12명 ▲홍성군 18명 ▲예산군 20명 ▲태안군 10명이다.

## ■ 평균 경쟁률 14대 1→8.33대 1

지난해 충청남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평균 경쟁률은 14대 1을 기록했었다.

지역	2018년	2019년	지역	2018년	2019년
충청남도	20대 1	-	당진시	11대 1	6대 1
천안시	28.25대 1	12.4대 1	부여군	8대 1	12대 1
보령시	7대 1	4.67대 1	서천군	7대 1	6대 1
아산시	14.5대 1	19대 1	청양군	15대 1	4대 1
서산시	19.5대 1	6대 1	홍성군	3대 1	18대 1
논산시	12대 1	10대 1	예산군	9.67대 1	6.67대 1
공주시	-	13.5대 1	계룡시	-	7.5대 1
금산군	-	5.75대 1	태안군	-	2대 1

천안시가 28.25대 1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 모집이 20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경쟁률은 ▲보령시 7대 1 ▲아산시 14.5대 1 ▲서

산시 19.5대 1 ▲논산시 12대 1 ▲당진시 11명 ▲부여군 8명 ▲서천군 7대 1 ▲청양군 15대 1 ▲홍성군 3대 1 ▲예산군 9.67대 1이다.

2019년 충청남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평균 경쟁률은 8.33대 1로 전년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다.

홍성군이 18대 1로 가장 높았으며 태안군이 2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천안시 12.4대 1 ▲보령시 4.67대 1 ▲아산시 19대 1 ▲서산시 6대 1 ▲논산시 10대 1 ▲공주시 13.5대 1 ▲금산군 5.75대 1 ▲당진시 6대 1 ▲부여군 12대 1 ▲서천군 6대 1 ▲청양군 4대 1 ▲홍성군 18대 1 ▲예산군 6.67대 1 ▲계룡시 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 평균 응시율 72% · 합격선 평균 329.44점

2018년 충청남도 지방직 9급 지방세(일반) 필기시험 결과 평균 응시율은 72%로 나타났다. 출원인원 364명 중 261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지역	응시율	합격선	지역	응시율	합격선
충청남도	50%	242.23점	당진시	73%	343.08점
천안시	72%	368.95점	부여군	63%	328.25점
보령시	93%	338.74점	서천군	81%	303.29점
아산시	76%	329.03점	청양군	60%	347.11점
서산시	69%	380.11점	홍성군	100%	276.03점
논산시	72%	346.20점	예산군	79%	350.37점

출원인원이 3명이었던 홍성군이 응시율 100%를 기록했으며 보령시가 93%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응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50% ▲천안시 72% ▲아산시 76% ▲서산시 69% ▲논산시 72% ▲당진시 73% ▲부여군 63% ▲서천군 81% ▲청양군 60% ▲예산군 79%를 각각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선은 평균 329.44점이었었다. 충청남도가 242.23점으로 가장 낮았고 서산시가 380.11점으로 가장 높았다.

각 지역별 합격선은 ▲천안시 368.95점 ▲보령시 338.74점 ▲아산시 329.03점 ▲논산시 346.2점 ▲당진시 343.08점 ▲부여군 328.25점 ▲서천군 303.29점 ▲청양군 347.11점 ▲홍성군 276.03점 ▲예산군 350.37점을 기록했었다.

●●●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대비

# 어대훈 휴먼사회복지사 1급 이론강의 ⑨

2019년 7월 27일(토)~9월 29일(일)

매주 토·일요일 14:00~19:00

수강료 : 실강 300,000원 / 교재(별도 구매) : '2020년판 휴먼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대비 기본서(3권)'

강의내용 ① 각 과목(영역별 이론 강의) ② 휴먼 장학생 OX 모의고사 8회 실시(총 800문제) → 복습강의 점검 & 실력 향상 → 휴먼장학생실강) 혜택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남부고사)학원 021815-7819, 3280-9990

- SALE**
- PACK 1. 이론+핵심+문풀+최종**  
700,000원 → 560,000원 (20% 할인)
- PACK 2. 이론+문풀+최종**  
550,000원 → 450,000원 10만원 할인
- PACK 3. 이론+핵심+최종**  
500,000원 → 430,000원 7만원 할인

SALE





합격을 위한 선택 박문각

박문각  
스파르타

설 명 회

# 2020 박문각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

합격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작!

7월 개강, 설명회 특급 이벤트 진행 중!!

분석을 통한 합격에 최적화된

박문각 스파르타  
관리 시스템!

공무원을 시작하는 첫 단계!

9/7급 기본이론종합반  
& 학습커리큘럼!

상담서비스

※ 박문각을 검색하세요.

카톡상담

## 5.31(Fri.) 2:00 P.M. 남부 본원 301호

“푸!짐!한! 선물과 함께 박문각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약자 증정 수험가이드북 증정  
추첨을 통해 온라인 수강할인권 증정

※ 사은품 이미지는 실제 사은품과 달라질 수 있으며 50,000원 이상 증정품은 제세광고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할인권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남부고시)학원 02)815-7819, 3280-9990 온라인 02)3489-9500



## 「2019년 국가직 9급 시험」 국어(라형) 기출문제 해설(7)

| 이유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16.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전과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전과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 즉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고전과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룬 음악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성악이 아닌 기악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특히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보다고 주장하였기에 '옛것에서 배우자는 의미의 고전'과 '청정하고 우아하며 호텟 없음,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다다름으로서의 고전'을 모두 지향하게 되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과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고전과 음악이 서양 전통 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과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전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과 음악의 성격과 특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 ② 고전과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한다.
- ③ 고전과 음악의 음악가들을 예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④ 고전과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미를 밝힌다.

#### [정답] ②

[출제영역] 독해(비문학) - 논지 전개 방식

[해설]

고전파는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는 부분으로 보아 고전과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서 '고전과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 ③ 둘째 문단에서 고전과 음악의 음악가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을 예시로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마지막 문단에서 '고전과 음악이 서양 전통 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과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부분을 고전과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 17.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가)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나) 모든 사람은 쿼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는 것은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광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 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 ②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 ③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한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없이 요구된다.

#### [정답] ①

[출제영역]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해설]

(가)에서 경험론자들은 모든 관념과 판단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에서 실용적 기술 개발은 상당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와 대조되었으며, 일차적으로 감각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절대적인 확신을 부정하는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에서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언급은 찾을 수 있으나, (나)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감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합리론적 사고)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나)에서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으므로,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한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나)에서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으므로,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뭔가 어렵겠지만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닮은꼴이다. 이사한다고 짐을 내려놓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미국에서의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

남자들이 군에 가 훈련을 받을 때 비라도 추적추적 오게 되면 자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며 따뜻한 방에서 입에 자장을 묻히는 장면은 정겨울 수밖에 없다. 프로 농구 원년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음식이 맞지 않는 맛도 있겠지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쌈계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식을 하기에 부담되고 한 번쯤 식당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피자를 간식이나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 ①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 ②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
- ③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본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 ④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 [정답] ④

[출제영역]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해설]

마지막 줄에서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했으므로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라는 내용은 틀린 선지이다.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서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는 부분을 통해 피자가 배달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라는 부분에서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쌈계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셋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마지막 문단의 '외식을 하기에 부담되고 한 번쯤 식당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자장면과 피자는 안성맞춤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본 전환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검색창에서 **박문각올패스** 를 검색하세요!

2018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  
KCPBA 2017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브랜드대상  
해럴드경제 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경영대상  
KSCI 201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지금까지 이런 혜택의 강도는 없었다.

무제한 수강! **가장 강력한 PASS!**

## 9·7급 박문각 올패스

# ALL PASS

**48기 한정판매 (5.16 ~ 5.30)**



전과목 무제한 수강



수강료 전액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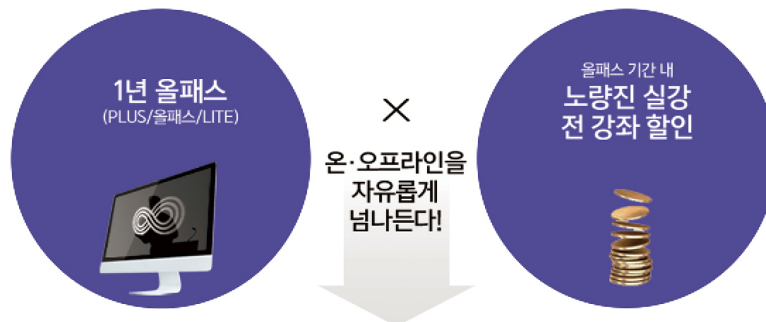
온라인 수강관리

### 올패스와 노량진 실강을 하나로!

단 3만원 추가 시, 올패스를 수강하면서 노량진 실강 최대 30% 할인 혜택!

NEW 48기 한정판

### 올패스 CROSS



**최대 150만원 혜택!**



## 「2019년 공무원 영어 출제예감 어휘」 Voca Test(2)

| 정일현 교수 | 박문각강남고시학원

### 정일현 영어

▶ PA(05-06월)7급 & 9급 영어 기본이론 단과

개강일 : 2019/05/08

시간 : [월] 09:00~13:00 [수] 14:00~18:00

▶ PB(04-06월)지방직 9급대비 영어 단과

개강일 : 2019/04/10 / 시간 : [수] 09:00~13:00

▶ 빠른 합격을 위한 공시생 스토리

'공시gogo' (<https://cafe.naver.com/gongsigogo>)

※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01.

The rumor of a heavy lay-off **penetrated** the whole workplace, which has caused tensions not only within the company but other companies as well.

- ① conciliated
- ② importuned
- ③ ignited
- ④ permeated

02.

In his schooldays time he was so **diffident** that he could never tell her he loved her.

- ① timorous
- ② veracious
- ③ apathetic
- ④ gullible

03.

Our society seriously suffers from the shallowness of those who are prone to **flashy** displays.

- ① bellicose
- ② sardonic
- ③ thrifty
- ④ ostentatious

04.

With the chance of Brexit looming,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re **fluctuating** sharply, and share prices are unstable due to groundless rumors and investors ride an emotional roller-coaster.

- ① indulgent
- ② conspicuous
- ③ variable
- ④ propitious

05.

Police arrested another suspect staying nearby and have been interrogating them about how they had **made away with** their money.

- ① excavated
- ② stole
- ③ probed
- ④ reimbursed

06.

To tolerate what you like is easy. It is toleration of what you **abominate** that characterizes the liberal attitude.

- ① circumscribe
- ② rusticate
- ③ loathe
- ④ comport

07.

People who are too **covetous** for success may miss some of the joys of life.

- ① affluent
- ② thrifty
- ③ prosperous
- ④ avaricious

08.

To many the moving pictures offered an escape from **drab** reality into the unreal world of romance.

- ① monotonous
- ② infirm
- ③ perspicuous
- ④ sanguinary

### [ 정답 및 해설 ]

01. [정답] ④

[해석]

대대적인 감원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전 작업장에 퍼졌고, 그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긴장을 초래했다.

[어휘]

penetrate 관통하다, 스며들다(= permeate)  
conciliate 달래다, 화해를하다  
importune 끈질기게 출라대다, 괴롭히다, 애원하다  
ignite 점화하다, 흥분시키다

02. [정답] ①

[해석]

학창시절에 그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았고 숯기도 없었다.

[어휘]

diffident 소심한, 소극적인(=timid, timorous)  
veracious 진실의, 진실한  
apathetic 무감각한, 냉담한  
gullible 잘 속는

03. [정답] ④

[해석]

우리 사회는 화려한 외양만을 자랑하는 천박함이 만연하고 있다.

[어휘]

flashy 과시적인, 겉치레뿐인(=ostentatious, pretentious, showy,)

bellicose 호전적인, 싸우기 좋아하는(=aggressive, warlike)

sardonic 냉소적인, 조롱하는

thrifty 검약하는, 아끼는

04. [정답] ③

[해석]

블랙시트의 가능성이 떠오르자 국제 금융은 심하게 변동하고 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로 주가는 요동을 치고 투자자들은 일회일비한다.

[어휘]

fluctuating 변동적인, 오르내리는(=variable, unstable) / indulgent 관대한, 엄하지 않은

conspicuous 명백한 / propitious 상서로운, 길조의

05. [정답] ②

[해석]

경찰은 또한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용의자를 체포했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돈을 갖고 달아났는지 조사하고 있다.

[어휘]

make away with ~을 가지고 도망가다

excavate 발굴하다

probe 조사하다

reimburse 변제하다, 배상하다

06. [정답] ③

[해석]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쉽다. 자유주의적인 태도의 특징은 자신이 혐오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어휘]

abominate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loathe)

circumscribe 제한하다

rusticate 시골에 살다

comport 행동하다, 처신하다

07. [정답] ④

[해석]

성공을 너무 열망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몇몇 즐거움을 놓칠지도 모른다.

[어휘]

covetous 탐내는, 갈망하는(=avaricious, avid, desirous)

affluent 부유한

frugal 검소한

prosperous 번영하는

08. [정답] ①

[해석]

많은 영화들은 단조로운 현실로부터 현실 같지 않은 로맨스의 세계로의 도피를 제공한다.

[해설]

drab 단조로운(=monotonous)

infirm 약한, 불안정한

perspicuous 명료한, 명쾌한

sanguinary 잔인한, 지독한

< 다음호에 계속 >



#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 프라임패스

노랑진 / 종로 / 강남 / 부산 / 평택 / 양산 / 순천

## 45년 노하우로 설계된 최상의 합격 시스템

	+		+	
박문각 올패스 무제한 동영상강의		최신 시설의 지정좌석 전용학습관		철저한 관리/감독 스파르타 관리시스템

##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적의 학습 환경 제공

<b>노랑진 학습관</b> 02-812-6618	<b>종로 학습관</b> 02-6182-9620	<b>강남 학습관</b> 02-3476-6030	
<b>부산 학습관</b> 051-807-1972	<b>평택 학습관</b> 031-691-1972	<b>양산 학습관</b> 055-388-1972	<b>순천 학습관</b> 061-726-1113

## 이런 수험생에게 스파르타 프라임패스를 추천합니다

			
동영상 강의가 좋지 않 학습 능력이 떨어졌던 수험생	취약부분의 반복학습과 철저한 생활관리를 원하는 수험생	정확한 수험정보와 맞춤형 수험전략이 필요한 수험생	자유로운 강사선택과 학습비용 절감을 원하는 수험생

선택 공무원 동영상 강의의 무제한 수강과  
따라올 수 없는 관리 시스템의 합격 시너지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PMG 박문각공무원**









## 합격이 술술, Q&A 비집기(10)

| 전선혜 교수  
| 박문각남부·강남고시학원

- 선혜국어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shgotgan>

-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의 Q&A 중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정한,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기출문제와 연결해 보는 코너입니다.

### 어간에 'ㄹ' 받침을 가진 용언의 문법적 특징

#### [ 질문 ]

1. '만들'이 맞나요, '만듬'이 맞나요?
2. '땀에 절은'이 맞나요, '땀에 전'이 맞나요?

#### [ 국어원 답변 ]

1.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에는 'ㄴ'이 아닌 'ㄷ'이 결합하여 명사형을 제시하므로 '만들'으로 적는 것이 바릅니다.
2. '땀에 전'이 맞습니다. '절다, 같다, 높다'와 같이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어미 'ㄴ'이 붙을 때, '전, 간, 논'과 같이,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며, 준 대로 적습니다.

#### [ 술술, 이론과 기출 비집기 ]

어간 끝에 'ㄹ' 받침이 있는 용언의 활용형과 관련한 사항은 주로 맞춤법 문제로 출제되는데, 어간에 'ㄹ' 받침이 있는 용언은 다른 받침을 가진 용언들에 비해 활용형을 만들 때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의 내용도 '만들다'의 명사형과 '절다'의 관형형에 대한 것이다.

두 단어 모두 어간에 받침 'ㄹ'이 있는데, 어간의 받침이 'ㄹ'이면 결합하는 어미가 매개모음 '으'를 포함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서, 명사형을 만들 때는 명사형 어미 'ㄴ'이 아닌 'ㄷ'이 결합되고, 관형형을 만들 때도 관형형 어미 'ㄴ'이 아닌 'ㄷ'이 결합되어야 한다.

#### 1. 어간에 'ㄹ' 받침이 있는 용언의 명사형 표기

: 명사형 어미 'ㄴ'을 결합처럼 용언의 어간에 바로 붙임.

- (1) 만들다: 만들음(×) / 만들(○)

예) 오늘은 하루 종일 만두를 만들.

- (2) 절다: 절음(×) / 절(○)

예) 운동을 해서 옷이 땀에 젖다.

#### 2. 어간에 'ㄹ' 받침이 있는 용언의 관형형 표기

: 어간 받침 'ㄹ'이 탈락하고 그 자리에 관형형 어미 'ㄴ'을 붙임.

- (1) 만들다: 만들음(×) / 만든(○)

예) 이제 우리가 만든 만두이다.

- (2) 절다: 절음(×) / 전(○)

예) 땀에 전 옷을 입고 있다.

용언의 명사형 표기를 물었던 2012년 사회복지직, 인천시 9급 문제에서는 어간의 받침이 'ㄹ'인 용언들을 활용하여 '①열음이 얹(○), ②은정을 베풀(×) → 베풀, ③빠른 걸음으로 걸음(○)' 등을 출제했고, 2012년 지방직 9급에서는 용언의 활용형 문제에 '①살으십시오 → 살립니다(○), ②벌으므로 → 벌므로(○), ③전 → 절음(×) ④ 밭을 파다 → 밭시다(○)' 등이 출제되었다.

## 'SPEED' 영단어 암기(10)

### 60. pick up

- ① (누군가를) 태워 주다

▷ I'll pick you up and take you to the airport.

(자네를 태워서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I'll pick you up at your place at 8 o'clock.

(8시에 네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가겠다.)

cf.) I'll pick up you at your place at 8 o'clock.(×)

※ 타동사 + 부사 구문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타동사 + 목적어 + 부사」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 ② 나아지다

▷ The market always picks up in the spring.

(시장은 언제나 봄이 되면 활기를 띤다.)

- ③ 다시 시작하다

▷ We'll pick up where we finished yesterday.

(우리는 어제 끝낸 곳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 ④ (무언가를 잡아서) 들어올리다(=lift)

▷ I picked up your bag by mistake.

(제가 실수로 당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 ⑤ (무언가를) 알아채다

▷ The dogs picked up the scent and raced off.

(개들은 그 냄새를 알아채고 달려갔다.)

- ⑥ (병에) 걸리다(=catch)

▷ He picked up malaria when he visited Africa.

(그는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말라리아에 걸렸다.)

- ⑦ 체포하다(=arrest)

▷ He was picked up by the police for drug dealing.

(그는 마약 거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 ⑧ 배우다(=learn)

▷ When you live in a foreign country, you soon pick up the language.

(당신이 외국에 살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빨리 배우게 된다.)

### 61. obvious

: 명백한(←obscure : 애매한) (부) obviously : 명백하게, 분명히

▷ It is obvious that he is lying.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은 뻔하다.)

### 62. optimism

: 낙천주의(←pessimism : 비관주의) (형) optimistic : 낙천적인  
(←pessimistic : 비관적인)

▷ The situation doesn't warrant optimism.

(정세는 낙관을 불허한다.)

【참고】 optimist : 낙관론자(←pessimist : 비관론자)

### 63. ideal

: 이상적인 이상, 전형, 모범

▷ It would be ideal if you could stay.

(네가 머물 수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

【참고】 idealist : 이상주의자, 관념론자 idealistic : 이상주의적인, 관념론적인 idealism : 이상주의, 관념론

### 64. inherit

: 상속하다, 물려받다 (명) inheritance : 상속, 유전

▷ He inherited a large fortune from his father.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참고】 inherit : 타고난, 고유의 heredity : 유전 hereditary : 유전의, 세습의 heritage : 유산

박문각 최초, 종로학원 단독 런칭!!

2020년 9급 공무원 시험대비

# 종로 스파르타 평생회원반

스파르타에 평생회원을 더하다.

2019년 대비  
9급 공무원

종로스파르타 & 프라임패스 통합 설명회  
6월 4일(화), 7일(금) PM 3:00



기숙시스템  
연계



합격할 때 까지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 책임지는

박문각의 새로운 100% 합격 관리시스템



학원강의  
정규과정



온라인강의  
(올패스)



영어집중반  
그룹과외



스파르타 전용관  
1인 독서실



2019년 기본서  
SET



스마트한 학습  
픽펜



X2 강력해진  
스파르타 TEST



교수가 학생을 관리  
교수담임제





## 「2019년 국가직 9급」 행정법(나형) 기출문제 해설(4)

| 김진영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13.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역임명대상자가 현역병임명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임명을 한 후에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임명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임명통지처분을 다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①

[해설]

- 【×】① 현역으로 임명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병적을 당해 군 참모총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임명 및 복무의 근거가 된 현역병임명통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현역임명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임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명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임명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3. 12. 26. 2003두1875).
- 【○】②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존속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5. 3. 25. 2004두14106).
- 【○】③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2. 1. 11. 2000두3306).
- 【○】④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사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9. 1. 30., 2007두13487).

###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인 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에 승계된다.
- 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과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자책오 등은 그 의무반을 맞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ㄷ. 세무공무원이 채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ㄹ. 구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결차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옳은 것은 ㉠㉡㉢이다.

- 【×】㉠ 틀림. 조세부과처분의 하자는 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에 승계되지 않는다. 서로 별개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 【○】㉡ 옳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

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4.12. 2000두5944).

【○】㉢ 옳음. 국세징수법 제25조

【○】㉣ 옳음.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결차 없이도 법률에 규정되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5.6.10., 2005다15482).

### 15.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 ③ 행정심판법 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산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② 행정심판에서는 부당한 처분도 심판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심판법 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7조).

【○】④ 행정심판법 제18조의 2 제1항

### 16.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①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 6. 15. 2016두57564).

【×】②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6.15. 2013두2945).

【×】③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쟁송절차인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총장이 한 재항고각하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0. 1. 23. 89누3014).

【○】④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헌재결 2015.3.26. 2013헌마214·245·445·804·833, 2014헌마104·506·1047(병합)).

2020 소방공무원 합격! 합격점수까지 끝장낸다!

# 박문각 소방직 단독반

## 7월 8일 (월)개강

소방직 단독반 최강 교수진!  
소방 경력과 실무로 합격을 책임진다!



### 소방직 단독반 맞춤 스케줄

일	화	수	목	금	토
09:00 ~ 11:00	기초 영어	기초 영어	한국사	기초	영어
11:00 ~ 13:00		한국사			
14:00 ~ 18:00	영어 집중반			소방직 특강	소방직 특강

### 소방직 단독반 수강생만을 위한 특급혜택

소방복습  
동영상 제공



소방종합반  
전용자습실



소방종합반  
사물함 제공



소방종합반  
전담 관리제



2020 **119** 소방대원 합격을 위한 **119** 수강료 할인 이벤트!

박문각 소방직 종합반  
공채/특채반

## 2개월 119,000원!



## 「2019년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나형) 기출문제 해설(3)

| 김지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3. 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교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구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다.
- 이 전략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미범죄자나 초범자들에게만 적용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 ① 무의한 전략(null strategy)
- ②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 ③ 정문정책(front-door policy)
- ④ 후문정책(back-door policy)

[정답] ③

[난이도] 하

[해설]

인구감소전략의 하나인 정문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정도 교정학, pp. 120-121>

1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한 위탁할 수 있다.
- ②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계약 기간은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 ③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③

[난이도] 하

[해설]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을 겸할 수 없고, 이사는 감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지만, 민영교도소 등의 장은 겸할 수 있다.

<정도 교정학, pp. 532-538>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 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ㄷ.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ㄹ.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③ ㄴ, ㄷ

- ② ㄱ, ㄹ
- ④ ㄴ, ㄹ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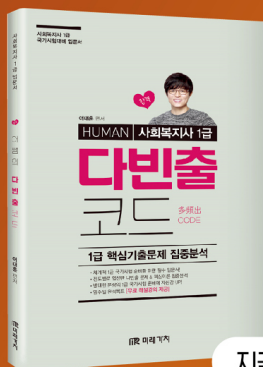
[난이도] 중

[해설]

- ㄱ.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 X 보호실 수용
- 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0
- ㄷ.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0
- ㄹ.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X 보안장비

<정도 교정학, pp. 275-282>

<다음호에 계속...>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대비

# 다빈출 교재 강의 무료 +

지금 박문각 사회복지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하세요!

PMG 박문각 사회복지사 www.pmg.co.kr • 노랑진(남부고시)학원 02-3280-9990, 9991



전국 최초 · 최장  
사회복지사1급 전문교수  
여. 대. 훈 (2002년 부터 강의)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 박문각 교정직 이론반



## 7월 8일 (월)개강

이론 종합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20~08:30	이론 영어 프로그램 (토목2과2과4과)						
09:00~10:00	영어	영어	교정직 (영어/국어)				교정직 (교정직)
14:00~18:00	한국사 (한문/한사)	한국사 (한문/한사)	국어	국어	한문/한사 (한문/한사)		
18:40~22:10					한문/한사 (한문/한사)		

※수업중복시 동영상제공

※한국사(한문/한사) 현장제공

2017년부터 교정본부  
면접시험 주관으로  
전공과목 중요성 UP

교정직/정소직/전공과목 집중학습!  
자신있게 추천하는 국어/영어/한국사 필수과목 교수진  
기본개념 중심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을 통한 기본기 및 실력다지기

종합반 선접수 이벤트  
수강료 50% 할인!  
(~5/31까지)

2개월 이론 종합반 -64만원 → 32만원 (50% 할인)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 PMG2세 학원 02-815-7679, 3388-9990 온라인 02-3468-9508

망 설 임 NO! 비 교 도 NO!

2020년 합격할 공시생은

**박문각 스파르타**

7월 개강반 OPEN

망설임을 지우는 결과와 비교 불가의 혜택으로  
2020년 공무원 합격을 완성합니다

망설임을 지우는 검증된 합격 커리큘럼 ✓

비교를 거부하는 7월 Cool~한 할인혜택 ✓

합격을 부르는 AI확인학습 시스템 ✓

합격할 공시생을 위한

**박문각 AI확인학습**

- 빅데이터 기반으로 합격에 최적화된 혁신적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박문각공무원스파르타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사고의 가속화/ 빠르고 정확한 공무원 합격!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 노량진(남부)세 학원 02)815-7819

자세한 사항은 PMG 고객센터(02)815-7819로 문의하십시오.

##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7월 Cool~한 혜택



수강료 최대 45% + 추가 50만원 할인



"장기 수강생을 위한 수강료 반/반 분할납부 혜택!"  
"친구 동반 등록 시 최대 50만원 할인 혜택!"



최대 할인

**50**  
만원

타 학원 수강료만 보아도 최대 50만원 할인  
19년 7월~19년 12월 타 학원 수강료 지급 시

2019년 말기 합격증만 가져도 최대 50만원 할인  
19년 말기 합격증 지급 시

최대 할인

**40**  
만원

모든 새내기 합격증 발급에 최대 40만원 할인  
19년 7월~19년 12월 합격증 지급 시

최대 할인

**30**  
만원

조기 등록 모든 수강생 5/23~6/13

2019년 공무원 출시 모든 수강생 2019년 정수용 지급 시  
모든 공무원 가족 수강생 공무원/주변등록 등록 지급 시  
모든 지방 출신 유학 수강생 신명동 지급  
모든 플러스 수강 수강생

\*모든 약관은 전장 등록 시 적용되며, 공지사항에 붙여드립니다.

### 9급 스파르타 커리큘럼

9급 공무원 합격 종합과정

**6개월 이론완성반**

35%할인

기본·심화이론 ● 기출정리정리

-420만원 → 273만원

2020년 9급 국가직 합격 프리미엄과정

**10개월 국가직 합격반**

40%할인

이론 ● 기출 ● 실전

-700만원 → 420만원

2020년 9급 합격을 위한 종합 프리미엄과정

**12개월 2관왕 달성반**

45%할인

이론 ● 기출 ● 실전 ● 마무리

-840만원 → 462만원

### 7급 스파르타 커리큘럼

2019년 합격완성 과정

**4개월 문제풀이반**

35%할인

요약정리 ● 문제풀이 ● 실전전략

-360만원 → 234만원

7급 공무원 합격 종합과정

**8개월 이론완성반**

35%할인

기본이론 ● 심화이론·이론 완성과정

-720만원 → 468만원

2020년 7급 국가직 합격 프리미엄과정

**14개월 국가직 합격반**

40%할인

이론 ● 기출 ● 실전 ● 마무리

-1,260만원 → 756만원

2020년 7급 합격을 위한 종합 프리미엄과정

**16개월 4관왕 달성반**

45%할인

이론 ● 기출 ● 실전 ● 마무리

-1,440만원 → 792만원





## 「2019년 국가직 9급 시험」 세법개론(나형) 기출문제 해설(3)

| 이수천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 ②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 ④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④

##### [해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회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정답] ②

##### [해설]

- ① 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국채 및 공채를 국내에 있는 부동산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 ③ 국회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회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세의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 ④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 15. 국제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무주관에서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납세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비상재해) 발생 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매입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③ 세무서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채권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제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정답] ①

##### [해설]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는 그 주무관에서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시송달의 방법은 관여사업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① 0원
- ② 5천만 원
- ③ 1억 원
- ④ 1억 8천6백만 원

#### [정답] ②

##### [해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소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지출액 중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100%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을복지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원에 50%를 곱한 5천만원이 된다.

### 1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생산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 ④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 [정답] ④

##### [해설]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증액한 금액(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감액하기 전의 금액(평가하기 전의 금액)으로 한다. 그 이유는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평가증만 허용될 뿐, 평가감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18.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다.
- ③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④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정답] ③

##### [해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이 법인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의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이 세무조사 등에 의한 소득금액의 변동통지에 의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에 따라 원천징수의 시기는 달라지게 된다.

### 19. 부가가치세법령 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 ①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 ②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 ③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포기
- ④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

#### [정답] ④

##### [해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20.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총매출액: 5천만 원(이 금액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2천만 원(장부가액 1천5백만 원)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3백만 원

- ① 5천5백 원
- ② 6천5백만 원
- ③ 6천8백만 원
- ④ 7천만 원

#### [정답] ②

##### [해설]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근거 및 계산내역	공급가액
(1) 매출액	50,000,000원 - 5,000,000원 = 45,000,000원	45,000,000원
(2)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매각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000,000원
(3) 양도담보의 제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표준		65,000,000원

박문각 세무팀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1년 내 합격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하기에

2개월  
종합반

9급  
스파르타  
회원반

# 박문각세무/관세 이론종합반

검증된  
박문각 내부  
최고 강사진

45년 전통  
합격노하우  
커리큘럼

교수  
직접참여  
학습관리

7월 8일(월) 개강

[~6/10일까지]

종합반 선점수 이벤트  
수강료 70% 할인!

2개월 이론 종합반 ~~64만원~~ → 19만 2천원 (70% 할인)

이  
유  
진  
박문각

전  
선  
혜  
박문각

최  
재  
영  
박문각

김  
세  
환  
박문각

김  
우  
현  
박문각

이  
수  
현  
박문각

이  
영  
희  
박문각

최  
영  
미  
박문각

고  
영  
희  
박문각



MSA  
카톡상담  
TEL

☎ 박문각을 검색하세요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http://www.pmg.co.kr)

노량진PMG교내학원 02-815-7819, 3280-9998 본관학원 020-489-9508





## 「2019년 국가직 9급 시험」 형법 기출문제 해설(1)

| 허문표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01. 「형법 제263조(동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② 처음에는甲이, 그 다음에는甲의 연락을 받고 온乙과丙이 함께 잡귀를 물리친다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아 피해자가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④ 「형법」 제263조는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답] ③ [출제영역] 형법총론 - 공범론 : 공동정범 [난이도] 하

[해설]

- ①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2000. 7. 28. 2000도2466)
- ② ○: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고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들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1985. 12. 10. 85도1892)
- ③ ×: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가해행위의 존재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각 가해행위가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입법자는 피해자의 법익 보호와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일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른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검사는 실제로 발생한 상해를 아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가진 가해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고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가해행위의 태양과 목적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 등을 모두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므로, 가해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63조) [헌재 2018.3.29., 2017헌가10]
- ④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1984. 4. 24. 84도372)

### 0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침해를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 ③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주의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주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면, 설명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출제영역] 형법총론 - 위법성론 [난이도] 하

[해설]

- ① ○: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침해를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7. 3. 15. 2013도2168)
- ② ○: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6. 4. 13. 2005도9396)

- ③ ○: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가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007. 3. 15. 2006도7044)
- ④ ×: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1. 9. 29. 2010도14587, (2015. 11. 26. 2014도781)

### 0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 중으로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계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A는 물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출제영역]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난이도] 중

[해설]

- ①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에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2018. 5. 17. 2017도4027)
- ② ○: 채무자가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에 줄 의무는 계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한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계약의 공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으로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계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14. 8. 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
- ③ ○: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의 목적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11. 1. 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④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어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04. 6. 25. 2004도1751)



Since 1972. 45년 합격노하우

2019년 외무영사직 대비 제2외국어

# 중 국 어

모의고사 문제풀이  
2019년 대비 최종 문제풀이



중국어 완전정복!

**최태은 교수**

개 강 | 6월 10일(월) 8주 과정

일 정 | 월·수 19:00~21:00

수강료 | 200,000원

(온라인 강의 제공)

QMG

박문각강남고시학원

2호선 강남역 10번출구 대우벤라체 2층

02)3476-6030

# 경찰

2019년 경찰시험대비  
가장 전략적이고 완벽한 선택  
**무제한T-PASS**

최고의 경찰시험 대비 T-PASS는  
원하는 교수의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교습권 포함입니다.

## 제2차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123명 선발'

원서접수 6월3일까지 실시...각 분야별 채용인원은?

【2019년 제2차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인원】		
분야	선발인원	실기시험
경위	경비작전	2명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1명
	구조	1명
	조사간부	5명
	통계정보	1명
	항공사업 1명	1명
	홍보미디어	1명
경장	과학수사	7명
	보안수사	2명
순경	구급	21명
	수사	15명
	정보통신	20명
	항공전담	20명
	항공정비	20명
	홍보	6명

2019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공고문이 발표됐다.

선발예정인원은 총 123명으로 원서접수는 6월3일까지 이어진다.

### · 경위

경위 분야 신규 채용 인원은 ▲경비작전 2명 ▲과학수사(디지털 포렌식) ▲구조 1명 ▲조사간부 5명 ▲통계정보 1명 ▲항공사업 1명 ▲홍보미디어 1명으로 집계됐다.

경위 분야 실기시험은 7월20일에 치러지며 합격자 명단은 7월25일에 발표된다. 향후 채용 일정은 ▲신체적성검사 8월17~23일 ▲서류전형 8월28~29일 ▲면접시험 9월4~5일 ▲최종 합격자 발표 9월19일이다.

### · 경장

경장 분야 선발인원은 ▲과학수사 7명 ▲보안수사 2명이다. 과학수사 채용규모는 ▲디지털 포렌식 3명 ▲화재감식 3명 ▲중

독감식 1명으로 확정됐다.

경장 분야 실기시험은 7월20일에 치러진다.

향후 채용 일정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7월25일 ▲적성검사 및 신체적력검사 8월17~23일 ▲서류전형 8월28~29일 ▲면접시험 9월4~5일 ▲최종 합격자 발표 9월19일이다.

### · 순경

순경 분야 채용 공고문도 발표됐다.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구급 21명 ▲수사 15명 ▲정보통신 20명 ▲항공전담 20명 ▲항공정비 20명 ▲홍보 6명 이다.

참고로 정보통신 채용인원은 ▲전산 10명 ▲통신 10명을 각각 선발 할 예정이다.

홍보 선발예정인원은 ▲정책소통 4명 ▲디지털소통 1명 ▲영상 1명으로 확정 됐다.

채용 일정은 ▲실기시험 7월20일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7월25일 ▲적성검사 및 신체적력검사 8월17~23일 ▲서류전형 8월28~29일 ▲면접시험 9월4~5일 ▲최종 합격자 발표 9월19일이다.

참고로 각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응시생들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 ◀ 2019년 시험대비 한국사 1분 문제풀이 ▶

### 01.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에 역사가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사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궁극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이 끊임없이 겪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이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인 셈이다.

- ①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② 역사는 사실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카(E. H. Carr)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구이다.
- ④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 과정은 객관적인 과거 사실만큼이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 02. 한국의 구석기시대 문화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였고 일부 막집도 짓고 살았다.
- ② 전기 구석기시대에는 찻개 같은 자갈돌 석기를 주로 만들었고 주먹도끼도 일부 제작했다.
- ③ 중기 구석기시대에는 트발루아 기법으로 만들어진 스펀지베이트가 한반도 북부에 등장한다.
- ④ 후기 구석기시대에는 간접폐기나 눌러폐기와 같은 방법으로 돌날석기를 주로 만들었다.

< 정답 01.① 02.③ >

## 조충환·양건 테마 시리즈



2019 테마 형법·형사소송법 판례·기출증보판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바로 그 객관식 문제집!

각종 기출문제 + 예상문제 총정리

“고득점을 위한 완벽한 객관식 문제집!”



양 건

조충환

동명상 강의 박문각 [www.pmg.co.kr](http://www.pmg.co.kr) ▶ 경찰 채용·승진 ☎ 02-3489-9500

경찰 준비의 시작과 끝! 박문각 경찰이 함께합니다.

# 박문각 경찰 점수폭발 관리반

제대로 된 '진짜' 관리로 합격을 약속드립니다!

5월 개강반



영어 펄 린

영어 정일현

형소법 박용두

경찰학 공병인

형법 오상훈

형소법 김상천

한국사 이운우

한국사 성정호

노량진 유일 과목별 교수 1:1 밀착 관리반!

매일 1과목 몰입학습, 1일 3회독 달성!

2020년 1차 시험 대비  
기본이론I 반 (2개월 과정)

~~640,000원~~  
20% 할인 **512,000원**

2019년 2차 시험 대비  
기출문제+핵심요약 정리반 (2개월 과정)

~~710,000원~~  
20% 할인 **568,000원**





## 2018년 경찰채용시험 형법 진도별 문제 및 해설(5)

| 오상훈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 1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경찰3차

- ①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뺏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산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번호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A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식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한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甲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와 공모하여 A의 승낙을 받고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甲이 피해자 A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A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A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정답] ②

[해설]

- ① × :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뺏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로 할 수 없다(대판 1996.1.12, 94도2781). → 기출문제집 92. ②
- ② ○ :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사자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9.12.24, 2007도6243). → 기출문제집 96. ①
- ③ × :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2.11, 2008도9606). → 기출문제집 107. 다.
- ④ × :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 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든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판 2003.5.30, 2003도1256). → 기출문제집 321. ④

###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경찰2차

-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제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피고인이 음주 당시에 잠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까지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형법」 제1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답] ②

[해설]

- ① ×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비록 그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법하지 아니한다(제9조, 절대적 책임무능력). 또한 소년법에 의한 부정기형은 사실심판결 선고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 기출문제집 기본문제 113. ①
- ② ○ :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자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0.8.18, 2000도2704). → 기출문제집 기본문제 113. ③ 전범위모의고사 제10회 05. ③
- ③ × ④ × :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예견할 수 있었다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999).

### 1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경찰3차

甲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A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보니 甲을 마중하러 나온 아버지 B였다.

-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법외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 ④ 오상방위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 [정답] ④

[해설]

- ※ 객관적 정당방위 상황이 없음에도 이를 있다고 오인하여 방위의사로 방위행위를 한 경우(오상방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서브노트 42p. Thema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및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 기출문제집 129. 130. 해설부분; 전범위모의고사 제10회 07. 사례; 전범위모의고사/동형모의고사 제3회 14. 사례
- ① × :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사례이다.
  - ② × :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이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한 금지의 착오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 위법성 조각 ×, 책임 조각 ○
  - ③ × : 해당 지문의 주어와 술어가 맞지 않는다. 술어부분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는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이다. 법외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불법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으로 취급한다.
  - ④ ○ : 유추적용설은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행위반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 16. 미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경찰차

- ㉠ 甲은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렌트 안으로 끌고 간 후 甲, 乙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乙은 위 렌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甲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乙이 위 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하여는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 ㉡ 피고인이 강종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해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든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 살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든 위법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정답] ③

[해설]

- ㉠ ×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렌트 안으로 끌고 간 후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렌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이 위 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에 비추어 보면 위 구본선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여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 다(대판 2005.2.25, 2004도8259) → 장대미수 ○ '· 공범과 중지미수: 공범의 결과발생 방지하여야 성립' → 전범위모의고사 제16회 08. ㉢
- ㉡ ○ : 피고인이 강종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해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든,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7.6.13, 97도 957). → 500제(진도별문제집) 395. ①; 전범위모의고사 제16회 08. ㉢
- ㉢ ×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7조). → 500제(진도별문제집) 153. ㉢
- ㉣ ○ :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500제(진도별문제집) 150. ㉢

역대급 최저가격, 역대급 최고혜택

# 박문각 경찰 올패스

올패스 단 하나로 합격 할 수 있도록  
가장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올해 합격이 목표라면

19년 2차 대비 **5개월 올패스** | 19년 8월 31일까지 수강 + 봉투모의고사 3회분 제공 | **16만원**

내년 합격이 목표라면

2020년 대비 **1년 올패스** | 3개월 수강연장권 제공 + 최종합격 시 수강료 100% 환급 | **35만원**

## 내년 합격이 목표라면 20년 대비 1년 올패스!

경제적 부담 없는 압도적 가격에  
3개월 수강연장권 + 합격 시 수강료 환급까지!  
박문각경찰 올패스라서 가능합니다.

구분	A사	B사	박문각 경찰
가격	75만원	73만원	<b>35만원</b>
수강기간	20년 1차 시험일까지	12개월	<b>12개월</b>
수강료 환급	X	X	<b>○</b>
수강과목	경찰채용 5과목 + 수사, 행정법	경찰채용 or 경형경제 과목 선택	직렬 구분없이 전과목 + 국,사,수,과
추가혜택	X	X	<b>올패스 3개월 연장권 제공</b>

이벤트 세부사항은 박문각경찰온라인 [www.pmg.co.kr](http://www.pmg.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추가 시험」

## 형사소송법 기출 문제(15)

| 김상천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 V 전문법칙

&lt;19. 경찰간부&gt;

29.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B가 A로부터 들은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甲이 증거 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대화내용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C의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A가 보낸 피해 내용의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그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아버지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였다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의 협박 문자 메시지가 저장된 피해자 A의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협박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는 경우, 위 문자정보는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만일 A가 피고인 甲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그 녹음테이프 원본이 증거로 제출 되었다면,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A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lt;19. 경찰간부&gt;

30.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 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

문 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 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lt;19. 경찰간부&gt;

3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인감증명서	나. 의사의 진료부	다. 전파조회보
라. 감정서	마. 수사보고서	바. 민사판결문 사본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②

&lt;18. 9급법원직&gt;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것은?

- ①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죄물자에 대한 시가감정 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것에 불과한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 ②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 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기재 내용
- ③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 ④ 보충사가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는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정답] ④

&lt;18. 9급법원직&gt;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

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④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동영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 VI 증거동의

&lt;18. 해결2차&gt;

다음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②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 동의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명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정답] ①

&lt;19. 해결간부&gt;

04.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서류의 사본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 ②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 동意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③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의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해진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④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⑥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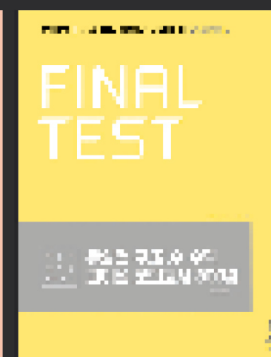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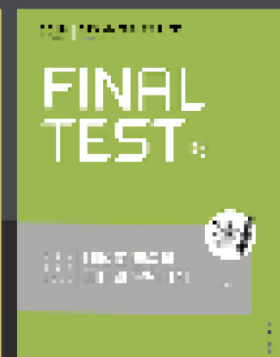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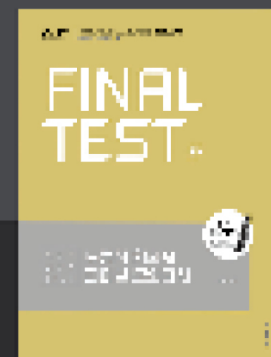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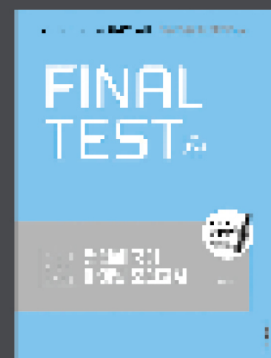
# 파이널

2019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비문학 공무원 모의고사 시리즈

시험장 느낌 그대로!

## 동형 모의고사

-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 2019년 9·7급 공무원 시험
- 9·7급 공무원 비문학
- 9·7급 공무원 비문학 모의고사
- 9·7급 공무원 비문학 기출문제
- 9·7급 공무원 비문학 기출문제
- 9·7급 공무원 비문학 기출문제
- 9·7급 공무원 비문학 기출문제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 김인식 교육학논술(4월) 공개모의고사(2)

| 김인식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1차 시험	1교시	1문항 2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를 위한 김군 중학교 교무회의의 내용 일부이다. 다음 대화문을 바탕으로 논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교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주제로 논하시오.

교감 선생님 : 교내자율장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 교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장 교사 : 네,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 서 추구하는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감 선생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필요를 고려해서 학교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 교사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기반이 되는 사상체계는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입니다.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체계의 진위판단 및 우열비교는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생활양식, 가치체계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진위의 판단 또한 자체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이 어떠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부터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으로는 벡크스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벡크스의 견해는 결국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차원을 설정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기본적 지침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사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벡크스의 견해는 그저 이론적 관점일 뿐 실질적으로는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결정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교사들이 책임을 지고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떤 정신적 과정을 그들이 성취했느냐 등을 진단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교사 :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박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서는 평가활동이 기존의 상대평가나 총괄평가보다는 다른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줄세우기식 평가방식은 결국 이들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이나 학습된 무력감을 심어줄지도 모르니까요. 따라서 이들의 학습을 위해서는 과정중심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평가는 결과타당도나 영향타당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 교사 : 네 그렇습니다. 평가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평가방식에 맞는 수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방식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을 총체적으로 돕기 위해 설립된 이주여성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과정중심평가나 결과타당도 등에 대해서는 평가전문가인 감사대학교 김인식 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lt;배 점&gt;

-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김 교사가 주장하는 다문화 교육 차원을 벡크스의 관점에서 3가지 논술 [3점]
- 박 교사가 언급한 것과 같은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설명 [4점]
- 정 교사가 주장하는 과정중심 평가의 기본적 입장(특징) 3가지 설명 [4점]
- 최 교사가 주장하는 연수 유형에 해당하는 장학 명칭(1점)과 특징 3가지 설명(3점) [4점]

&lt;수고하셨습니다.&gt;

먹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6】

[해설(2)]

## 4. 정 교사 : 과정중심 평가

(1) 개념(의미, 특징)

- ① 학생의 학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 과정 중에 일어나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 사고 및 행동의 변화 등 학생의 학습 성장과정을 토대로 결과를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피드백하는 학습지향적 평가이다.
- ②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방식이다.
- ③ ㉠학생이 이는 과정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동시에, ㉡교수-학습 질 개선을 위해 평가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고(평가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수업을 위한 평가), ㉢전인적, 종합적, 지속적 평가를 통한 ㉣수업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결과 활용 범위를 확장한다. 이것은 결국 평가를 위한 학습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혹은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라는 평가의 패러다임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암기위주와 정답 찾기 등의 결과중심 평가방식에서 문제해결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행평가가 대표적인 과정중심 평가이다.

(2) 설명(소결론) : 과정중심평가 방식은 학습자의 학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학습부진학생들의 학습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평가방식인바, 다문화 학생들에게 부합하는 평가방식으로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평가차원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5. 최 교사 : 컨설팅 장학

(1) 특징

- ① 컨설팅 장학은 교사의 자발적 의의를 바탕으로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내·외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제공하는 조언활동이다.
- ② 교육계 안에서만 폐쇄적인 장학에서 탈피하여 교과 및 교육활동 영역별로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장학요원을 위촉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장학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학교현장의 요구에 적합한 장학활동을 펼쳐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③ 장학 담당자와 교사 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교사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장학이 컨설팅 장학이다. 기본 입장은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자신들이 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개발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면 많은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2) 원리 - 컨설팅 장학 원리

- ① 의뢰인 : 자발성의 원리 - 문제나 과제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원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시작된다.
- ② 장학요원 : 전문성의 원리 - 지위의 고하, 직책의 성격을 막론하고 교원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학요원이 될 수 있다.
- ③ 장학활동 원리
  - ㉠자문성의 원리: 컨설팅 장학에서 컨설팅 장학요원은 교원을 대신하여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문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장학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컨설팅 장학요원에게 있지 않고 자문을 막론하고 교원에게 있다.
  - ㉡독립성의 원리: 도움을 요청한 교원과 컨설팅 장학요원은 상-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의뢰인과 장학요원이라는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즉, 컨설팅 장학요원은 의뢰인인 교원과의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 ㉢일시성의 원리: 교원에게 제공되는 컨설팅 장학은 계약 기간 동안 제공되는 일시적인 서비스로 되어야 한다. 의뢰인과 컨설팅 장학요원 간에 약속된 문제가 해결되면 컨설팅 장학은 종료된다.
  - ㉣교육성의 원리: 컨설팅 장학의 전 과정은 교원에게는 장학요원으로부터 컨설팅 장학 자체에 관한 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컨설팅 장학요원도 컨설팅 장학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컨설팅 장학의 새로운 기법이나 방법, 사례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2) 설명(소결론) : 최 교사가 주장하는 것은 교내 연수를 위해 외부인사를 초빙하자는 관점으로 컨설팅 장학에 해당한다. 컨설팅 장학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바,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6. 결론

- (1) 요약 : 이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벡크스의 다문화 교육 차원,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관점, 과정중심 평가, 그리고 컨설팅 장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 (2) 교사의 다짐 : 이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아니 벌써부터 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학교특성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시 말해, 학교교육과정 개발은 학생들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인바, 교사들의 전문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한 연찬이 필요할 것이다.

SINCE 1972  
박문각임용고시학원  
티치스파  
**전공**

합격을 위한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  
되겠습니다.



www.ngosi.co.kr  
www.teachspa.com

2020학년도 중등 교원임용 시험

## 김태규 · 구영모 전공역사

7~8월 문제풀이반(개론서 및 교과서)

**개론서부터 교과서를 총망라한 문제풀이!!**  
**역교론 신간 서적 추가한 문제풀이!!**

\* 직강 (200명) 입금 선착순 마감 : 반드시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계좌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 기간 : 정해진 계좌, 정해진 시간에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처리 됩니다.  
2018년 또는 2019년 2개월 이상 기수강생(인강 포함) 2019년 6/3(월) 09:00~17:00  
우선접수

미 마감 시 모든 수험생 2019년 6/4(화) 09:00~마감시까지

\* 직강반 200명 신청이 마감되면 직영상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0-784462 (주)박문각임용고시학원

\* 반드시 정해진 계좌로 입금한 다음, 직강 학원 홈페이지(www.ngosi.co.kr) 회원가  
입 후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선착순 마감)

\* 등록 확인 문자 받은 후 학원에 방문하여 카드결제로 전환 가능합니다.

반명	강사	과목	강의 시간	개강일	수강료
7~8월 문제풀이반	김태규	역사교육론	수 09:00~13:00	7/3(수)	58만원
		한국사	목 09:00~13:00	7/4(목)	
	구영모	서양사	금 09:00~13:00	7/5(금)	
		동양사	토 09:00~13:00	7/13(토)	
	2018년 또는 2019년 기수강생 54만원				

- ★ 7~8월 문제풀이는 한국사, 역사교육론, 동양사와 서양사, 그리고 기타사 부분 모두를 다룹니다.
- ★ 각 영역별 개론서와 동아시아사 교과서 4종 및 세계사 교과서 4종, 모든 교과서를 망라한 문제풀이입니다.
- ★ 인기강좌인 관계로 조기마감 예상됩니다. 직강 200명 마감 후 이후 등록하신 분들은 직영상반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직영상반은 직강학원 다른 강의실에서 동일한 시간에 강의 화면을 TV 모니터로 수강하는 강의입니다.)
- ★ 인원문제로 7~11월 강의까지 5개월 수강 학생만 2차분 등록이 가능합니다.
- ★ 7월 마지막주는 가정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7월 31일, 8월 1,2,3일)





「2020학년도 대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미술(4월) 모의고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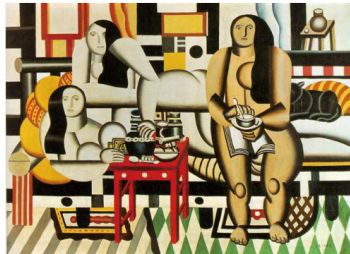
| 정 샘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1차 시험	2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기입형 1, 2, 6, 7번, 서술형은 11, 12, 13, 14번은 별첨 컬러 도판을 참고하십시오.	

05. 다음은 김 교사의 인체 드로잉 수업 자료이다. 작품과 설명을 참고하여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밑줄 친 ㉢의 뜻과 입체파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을 서술하십시오. [4점]
- [별첨 컬러 도판 참고]



(가) 플로이드



(나) 레제

- (가)는 플로이드의 ( ㉠ ) 드로잉에 의한 정물화이다. ( ㉠ ) 드로잉은 화지를 보지 않고 하는 드로잉이다. 즉, 눈을 대상물에서 떼지 않고 그리는 드로잉으로 실제하는 면만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 형태에 양감을 주는 기법으로 ( ㉡ ) 이 있다. 이 기법은 명도단계를 주어 양감을 생성시키는 기법이다. 즉, 회화에서는 이차원의 평면상에 삼차원적 형태의 입체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레제가 이들 형태에 양감을 붙여넣기 위해 이 기법을 사용한 좋은 예이다.
- 레제와 같은 입체파 작가들은 드로잉 표현 방법 중에서 ㉢데코포제(decomposer)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 표현에 주력했다.

## 전공 A 서술형 [05]

㉠ 블라인드 컨투어

㉡ 모델링

㉢ 데코포제는 **분해하다, 해체하다**의 뜻이다. 대상의 어느 면을 한 번 해체한 다음 다시 조합하는 과정에서 해체 과정을 데코포제라고 한다.

입체파가 데코포제 방식을 사용한 목적은 **보이지 않는 면까지 화면으로 끌어내어 사물의 본상을 밝히려는 것**이다.

배점 기준표				
조건	문제	정답	유사답안	배점
1	㉠	블라인드 컨투어		1점
2	㉡	모델링		1점
3	㉢ 뜻	분해하다, 해체하다		1점
4	목적	보이지 않는 면까지 화면으로 끌어내어 사물의 본상을 밝히려는 것		1점

06. 다음은 20세기 현대 조각 작품이다. 이 작품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로버트 모리스, &lt;무제&gt;, 1965

- 이 유파에 대하여 ㉠ **플로가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1967년 『미술과 사물성』에서 ‘**연극적**’이라고 하였다.

## &lt;작성 방법&gt;

- 작품이 속하는 미술 유파의 명칭과 특징을 서술할 것.
- 밑줄 친 ㉡에 대한 내용을 관람자 중심으로 서술할 것.

## 전공 A 서술형 [06]

유파는 미니멀 조각이다. 표현의 주관성을 억제하고 그것이 조각 혹은 회화를 나타내는 요소만을 압축시킨 것이 특징이다. 마이클 프리드는 미니멀 아트를 ‘**연극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비판한 이유는 첫째, 미니멀 작품이 **관람자를 작품의 요소로 끌어들이는 점**이다. 즉, ‘미니멀 조각이 주변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치를 갖게 되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모리스의 작품은 독립된 완결된 작품이 아니라 **전시 공간 속에서 관람자를 포함한 일종의 상황이거나 환경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람자는 작품 전체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감상, 수용하지 못하며, 그것들이 이루는 공간 속을 거닐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통하여 감상한다. 즉, **연극과 같이 시간을 들여서 부분과 부분을 이어서 감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마이클 프리드는 미니멀 아트의 이러한 속성이 **미술로서의 그 고유성을 잃고 퇴보하게 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즉, 프리드가 주장한 미술이란 시간과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그 작품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점 기준표				
조건	문제	정답	유사답안	배점
1	유파	미니멀 조각	미니멀리즘, 미니멀 아트	0.5점
	특징	주관성 억제	최소한의 미술	0.5점
2	㉡	<b>비판하였다.</b>	-연극성은 연극이 가져야 하는 특성이다. -회화는 회화다워야 한다.	1점
		<b>미술로서의 그 고유성을 잃고 퇴보하게 된다고 비판</b>	-회화에서 모든 가치는 작품 내부에서만 발생해야 한다.	
		관람자를 작품의 요소로 끌어들이는 점	- <b>전시 공간 속에서 관람자를 포함한 일종의 상황이거나 환경으로 존재.</b> -장르의 혼란을 유발하게 된 것이다.	
4		연극과 같이 시간을 들여서 부분과 부분을 이어서 감상해야 한다.	-연극과 같이 시간적인 경험이 작품을 경험하는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1점

SINCE 1972  
박문각임용고시학원  
티치스파  
**전공**

합격을 위한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  
되겠습니다.**



www.ngosi.co.kr  
www.teachspa.com

2020학년도 중등 교원임용시험 대비

## 박성선 · 박정아팀 전공음악

### 6~8월 박정아 시창청음 & 화성학 강의 안내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10-784470 예금주 (주)박문각임용고시  
※ 계좌입금을 해주신 다음 학원 홈페이지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목	시창청음 3단계 (8주 강의 10주 과제)	화성 심화반II (8주)
시간	개강 : 5/30(목) 시간 : 목 10:30~12:30	개강 : 5/30(목) 시간 : 목 14:00~17:00
교재 및 기타	* 교재 : 특수 프린트 제공 * 시창&청음 과제 음원 제공 * 온라인/스마트폰으로 과제 * 직강 & 인강 개설 *6/8(목) 휴강	* 교재 : 박정아의 화성 심화반 만점 노트 * 직강 & 인강 : 화성학 첨삭 * 직강 & 인강 개설 * 6/8(목) 휴강
	12만원	12만원
수강료	<p>〈 2018년 기수강생 → 2019년 수강 할인 혜택 〉</p> <p>2018년 화성학 기본 / 2018년 화성학 심화(직강, 인강) 2018년 시창청음 기본반 / 시창청음 1단계 / 시창청음 2단계 / 시창청음 3단계 / 시창청음 4단계 / 시창청음 모의고사반 (직강, 인강) * 2018년 총 8강의 중 5강의 이상 수강생 : 2018년 강의 직강 강의 신청 시 50%할인(하단 참조) 2019년 화성학 기본 / 2018년 화성학 심화 (직강) 2019년 시창청음 1단계 / 시창청음 2단계 / 시창청음 3단계 / 시창청음 4단계 (직강)</p>	
시창청음 3단계	<p>* 시창 : 스케일 시창, 3화음 시창, 7화음 시창, 음정 시창, 무조선율 시창, 리듬 시창, 선율 시창창작곡 시창 및 분석 등 * 청음 : - 음정 시창 연습 - 무조 시창 연습 - 조성 시창 연습 - 리듬 청음 연습 : 담김음 - 선율 청음 연습 : 다장조 &amp; 조성 - 시창청음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매주 청음 과제가 제공됩니다</p>	
화성학 심화반 II	<p>* 테스트 및 과제 - 매회 진행되는 화성학 테스트 문제와 과제는 실전에서도 가장 빠르게 화성학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 제작 된 자료입니다. - 테스트와 과제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화성학 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p> <p>* 화성학이 즐겁고 쉽다 - 박정아의 화성학 강의의 특징입니다. - 화성학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고, 화성학의 재미를 새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 응용반주와 실기와 연계된 화성학 강의는 음악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p> <p>* 1차와 2차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화성학 강의 - 응용반주와 실기와 연계된 화성학 강의는 1차 이론과 2차 실기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인강에 꼭 필요한 부분을 1차와 2차를 연계해서 진행합니다.</p> <p>* 간편하고 사상으로 경험한 화성학 -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 화성학은 알기과목이 아닙니다. - 원리와 화성진행을 이해하여 1차에서는 악곡 분석 및 악곡 형식 분석을 해야 하며, 2차 대비를 위해서는 자신이 화성진행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응용반주를 할 수 있습니다.</p> <p>* 교과서에 수록된 제시곡 악곡 전체 분석 -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악곡을 분석합니다. - 교과서에서 제시된 악곡들을 형식분석과 악곡 화성분석을 합니다. - 강의만 끝까지 수강해도 제 화성학 강의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해도는 매우 높습니다. - 화성학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박정아 화성학 수업의 특징입니다.</p> <p>* 화성학 스테디를 운영합니다 ( 직강 ) - 수업 종료 후 직강 수강생들은 자유롭게 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화성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 강의만 끝까지 수강해도 화성학 강의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해도는 매우 높습니다. - 화성학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박정아 화성학 수업의 특징입니다. - 직강 : 스테디와 첨삭을 진행합니다. -인강 : 첨삭을 진행합니다. - japharmony6316@gmail.net 실기 학원 핸드폰 : 010-6434-3161</p>	



## 「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 공인중개사법 · 중개실무 핵심이론정리(4)

| 고형석 교수 | 박문각 강남공인중개사학원

## 05. 중개업무

## I. 중개사무소

## 1. 중개사무소 설치원칙

- (1) 1등록 1사무소 원칙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됨

## 2. 법인의 분사무소

- (1) 설치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게만 허용
- (2) 분사무소 설치신고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 (4)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둔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예외

## 3. 분사무소 설치절차

- (1) 구비서류
  - ①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 ②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등록관청이 확인)
  - ③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함
  -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2) 수수료 납부
- (3)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교부(처리기간 7일)하고 지체없이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대상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

기재사항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함

## 4.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시행령(제16조 제2항)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음

1.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입금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
2.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

- (2)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또는 사무소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 (3) 경비집감, 개업공인중개사의 규모화로 중개의뢰인에게 신뢰감, 정보의 신속한 교환, 구성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가능
- (4) 부담의무는 구성개업공인중개사별로 각각 부담(인장등록, 업무보증설정 등)
- (5) 개업공인중개사의 중별에 무관하게 서로 혼합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가능
- (6) A 이전 전 A+B: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 (7) 등록관청이 다른 기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 (8) 기존 중개업소에 다른 사람이 신규등록하여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가능
- (9) 동일한 사무소에 2인 이상이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가능

## 5. 중개사무소의 이전(법 제20조)

- (1) 관할지역 내에서의 중개사무소 이전
  - 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 이전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
  - ② 제출서류
    - ㉠ 이전신고서
    - ㉡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 ㉢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 관할지역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음.
- (2) 관할지역 밖으로의 중개사무소 이전
  - 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 → 이전 후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함.
  - ② 제출서류
    - ㉠ 사무소 이전신고서
    - ㉡ 등록증
    -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③ 이전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함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함
  - ④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
    -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상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 ㉢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 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함
- (3) 분사무소의 이전
  - ① 분사무소의 이전 후 10일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신고

※ 이전신고서 제출서류

- 분사무소 이전신고서
-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함
- ③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④ 관련서류는 송부하지 않음
- (4) 등록증 등의 계시의무(법 제17조)

계시의무	보관의무(기간)	교부의무(상방)
· 등록증원본(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거래계약서	· 거래계약서
· 자격증원본(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 확인·설명서	· 확인·설명서
·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전속중개계약서	· 전속중개계약서
·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표		
· 업무보증서류		

## (5) 명칭(법 제18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 ②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함.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등록관청은 명칭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데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음

## (6)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청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행령 제17조의2)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형에 처함

## (7) 간판철거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함
-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음

## II.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 1. 업무지역범위

- (1) 법인(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 전국



합격  
기준 박문각  
공인중개사

19년 합격시 최대 40만원 합격축하금!

# 올패스 플러스<sup>+</sup>

2019년

2020년

합격 가능성도 플러스+ 혜택도 플러스+



1차만 합격해도  
합격축하금!



19년+20년  
최신 강의  
무제한 수강



5만원 즉시 할인  
5만원 적립금

+ PLUS

## 박문각만의 특별한 커리큘럼

합격을 만드는 차이!

		11, 12월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타사	오전	이론1	이론2	이론3	이론4	문제1	모고/족집게
	오후	오후 강의 없음					
박문각	오전	이론1	이론2	이론3	이론4	문제1	모고/족집게
	오후	-		기술특강	문제1	문제2	-

결과 1점은  
문제를 푸는 것!

2019년 공인중개사 합격!  
마지막까지 **박문각 공인중개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차 합격만 해도, **합격 축하금 15만원 지급!**

아쉽게 불합격 해도, **최신 강의 수강 1년 데!**

**PMG 박문각공인중개사**

www.pmg.co.kr

온라인 02)3489-9500

- (2)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 ①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 가능
- ②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시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 가능
- ③ 업무지역 위반시 업무정지처분사유(법 부칙 제6조 제7항)

##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법 제14조)

- (1) 중개업
-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3)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불가)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함
-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6)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부동산 컨설팅)
- (7)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부동산 프랜차이즈업)

## 3.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 (1) 겸업의 자유
- 원칙상 겸업자유 인정
-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법 제14조)도 가능
- 다만,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공매관련 업무 불가
-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보수(중개업 제외)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름.

##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업무

- (1) 고유업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으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중개업 외의 6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해석(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물론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

## III. 고용인

### 1. 고용인의 의의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포함하여야 함,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2)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3)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4)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5)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 ① 소속공인중개사: 확인·설명,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 작성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업무와 보조업무 가능하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②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한 업무보조할 수 있으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2.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고용인의 책임

- (1)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부담
- (2) 형사책임
- 고용인이 법 제48조·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고용인 자신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음

### (3) 행정처분

- 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법 제35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격정지(법 제36조)가 되는 경우도 있음
- ②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아님

## 3.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 (1)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 제2항)
- ② 고용인의 고의·과실과 재산상 손해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의뢰인이 부담
- ③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진정연대책무 관계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구상권을 가짐

### (2) 양벌규정(형사책임, 법 제50조)

- ① 고용인이 법 제48조·제49조의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고용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함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를 받게 된다 하여도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 ③ 고용인이 행정질서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불적용

### (3) 행정처분

-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간주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 ② 중개보조원의 금지행위로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간주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강남 박문각 고사학원 오로지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합격율 위한

다시 돌아온  
강.남.불.패  
강남 박문각  
1차 집중반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  
1차 실력이 막 잡히지 않는 수험생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율 목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박문각  
주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호 교수



부동산학개론  
서대술 교수

6월 1차 기본 이론 과정 개강: 6월 3일(월) 개강

6월 기본이론 강의 주요강의 8강3일(월)~부동산학개론 8강4일(화)~민법

	시간/요일	강사	과목	수	과목
● 3차	토요일 09:30~12:40 수요일 09:40~13:30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학개론	민법
● 4차	토요일 13:30~16:45 수요일 16:45~22:10	서대술	강제요	서대술	강제요

6월 4강도 1개월 300,000원 (7면서+인박로 강의 1개월 포함+사물함)

PMG 박문각 고사학원  
강남

상담  
문의

02-3476-3670



NAVER
종로박문각
YouTube
종로박문각

10월 26일 제30회 시험대비

# 5월 공인중개사

**보통가목**

보통정 중개사  
수강료 지원

대한민국 수월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KT 올레TV 879번**에서 시작됩니다.

본 학원 감사 전원 출강!

공인중개사  
pmg.co.kr  
동영상강의

**합격플랜 시험설명회**

- 6월 13일(목) 3시
- 6월 20일(목) 3시

설명회 당일 접수생 수강료, 교재 할인  
설명회 사전예약 접수(홈페이지 참조)

## 5월 1일(수) 개강

**적중예상단원별 문제풀이**

5/1(수) 8주 완성

강의교재 : "박문각 위 문제집" 지정좌석제

**명강사 명품강의**

수강생이 원하는 강사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맞춤형 코스 박문각 최고의 교수진

**종급반(이론과정)**

5월 1일(수) 개강!!

주간·야간  
(2개월 완성 소반반)

29회 공시생 통합반 등록비 10만원 할인(공시생 지원) (유복합반 30%)

**일요테마별 집중특강**

6/2, 6/16, 6/23 - 일요일 지정좌석제

**1차 집중 必 합격반**

개강 : 5월 7일(화) 개강 주간/야간

**특별장기회원 (4개월코스) (선착순 30명)**

**장기회원 등록시 파격 특별혜택!!**

수강기간 : 2019년 5월 ~ 2019년 8월

강의내용 : 심화이론, 문제풀이(오전반, 야간반만 해당)

- 총합반 ~~195만원~~ → ~~159만원~~ → 파격합인 ?만원
- 2차반 ~~165만원~~ → ~~139만원~~ → 파격합인 ?만원

**혜택** 2019년 박문각기본서 1,2차, 2019년 복습동영상 강해(PC+모바일)  
제30회 합격관리 물러나 제공, 2019년 모의고사(6회)  
29회 기출문제집 + 합격설명서 + 핵심용어사전

**PMG 박문각공인중개사** [www.pmg.co.kr](http://www.pmg.co.kr) | 종로학원 02)733-2288 온라인 02)3489-9500

맞춤형 수업!!

전국 수석 배출 교수진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 5.6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노량진박문각**입니다.

민법및민특법  
정동섭 교수

공인중개사법  
김상진 교수

부동산학개론  
박성호 교수

부동산공시법  
강철의 교수

부동산공법  
이석규 교수

부동산세법  
하현진 교수

민법및민특법  
박문호 교수

공인중개사법  
김상진 교수

부동산학개론  
박성호 교수

부동산공시법  
박윤모 교수

부동산공법  
최성진 교수

부동산세법  
최성진 교수

**개강 5월1일(수) 심화이론반**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반	민법및민특법 (09:50~13:30)	공인중개사법 (09:50~13:30)	부동산학개론 (09:50~13:30)	부동산공시법 (09:50~13:30)	부동산공법 (09:50~13:30)	부동산세법 (09:50~13:30)
교수진	정동섭 교수 박문호 교수	김상진 교수 김상진 교수	국승욱 교수 박성호 교수	강철의 교수 박윤모 교수	최성진 교수 이석규 교수	하현진 교수 정석진 교수
야간반 (18:50~22:30) 교수진	박문호 교수	김상진 교수	박성호 교수	박윤모 교수	최성진 교수	

**토요일 세법강의는  
주간반 합반합니다.**

**부동산학개론  
합격테마특강**

박성호 교수

- 일 시 : 5월19일(일) 오전 10시~
- 수강료 : 7만원(특별회원 6만원), 교재별도
- 내용 : 경제, 투자, 금융, 평가

**부동산학개론  
합격테마특강**

국승욱 교수

- 일 시 : 5월19일(일) 오전 10시~
- 수강료 : 7만원(특별회원 6만원), 교재별도
- 내용 : 경제, 투자, 금융, 평가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합격으로 가는길!**

최성진 교수

- 일 시 : 6월9일(일) 오전 10시~
- 수강료 : 7만원(특별회원 6만원), 교재별도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합격으로 가는길!**

이석규 교수

- 일 시 : 6월23일(일) 오전 10시~
- 수강료 : 7만원(특별회원 6만원), 교재별도

**PMG 박문각공인중개사** [www.pmg.co.kr](http://www.pmg.co.kr) | 노량진학원 02)812-6666 온라인 02)3489-9500



## 합격기준! 박문각 공무원!

초시생을 위한 **2개월**, 박문각 **9급기본종합반**

**공무원  
진짜  
출석만 해도**

박문각 9급 최초  
환급반 개설!

**0원**

박문각 9급 기본종합반 환급반 / 노량진 캠퍼스

**7월 8일 (월)개강**



합격으로 검증된 박문각 공무원!

**0원으로 부담 없이  
공무원 START!**

### 종합반 강의시간표

시간표는  
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30~08:30	환급반 아침 자습						
09:00~13:00	영어	영어 국어	국어	한국사	한국사		국제법 (09:30~)
14:00~18:00	행정학 (이영훈)	행정학 (이명훈-격주) 행정학(신용현) 회계학(신은미)	행정법 (유대웅, 박두희) 세법/형법 수학	행정법 (유대웅, 박두희) 세법/형법 수학	사회(15:00~) 행정법(김진영) 회계학(신은미, 오준석)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 수학	사회(15:00~) 회계학(오준석)	
18:40~22:10	행정학(이경)	행정학(이경)	형법 행정법(박제인)	행정법 (박제인-격주)	형사소송법 컴퓨터일반		

\*동영상 제공 : 과학, 교육학, 노동법, 사회복지학

\*환급반은 07:30부터 아침 자습시간입니다.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남부고시)학원 02)815-7819, 3280-9990 온라인 02)3489-9500